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14 호
2012년10월1일발행

≫ 두 번째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대지진으로부터 1 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생활이 크게 호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은 활기가 가득, 아이들만을 위해 기획된 "여름 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또한,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성공회 관련 학교와 교회에서 많은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피해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적은 가운데 피해 각지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내방 한 분들에게도 피해 지역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교류함으로써 많은 경험과 배움이 부여 된 것 같습니다.

그림일기 숙제에도
캠프가 등장했습니다.

여름 방학 어린이 프로그램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위해서!
나가사키, 니가타, 이와테에서 개최

대학생 봉사자의 소리
고배소인여저학원대학
나고야 류죠단기대학

여름 방학
어린이 프로그램①

남쪽섬에서 여름방학

7月26日—28日

"남쪽의 섬에서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나가사키 현 타카시마에에있는 규슈 교구 신도의 민박을 사용하여, 이와테, 미야기, 특히 후쿠시마에 사는 가족에 마음껏 여름 방학을 지낼 수 있도록 부른 것입니다. 규슈 교구 신도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후쿠시마에서 일가족 4 명을 맞이하여,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조용한 섬에서 3 박 4 일을 보낼 수있었습니다. 큐슈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하고 싶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물 이괴로워!

함께 낚시하러

『나가사키현 다카시마에 갔다』

오카다 카즈히토 후쿠시마 성 스테파노 교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출발 직전이였습니다. 참가 권유를 받은 것은 8 월초로, 이미 여름 방학의 예정은 정해져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 했지만, 다른 캠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일도 예상보다 빨리 끝나 타카시마 쪽에서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하카타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나가사키의 원폭 자료관 등을 견학했습니다. 저 외에 중학교 3 학년의 장남과 초등학교 6 학년 딸, 1 학년의 차남 3 명이갔지만, 만약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원폭이 투하 된 당시 나가사키와 변함없는 비참한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3 일째는 타카시마의 해수욕장에서 모두 스노클을 착용 하고 산호초를 보았습니다.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 놀랐습니다. 어린이들도 후쿠시마에서는 좀처 럼 해수욕도 할 수 없었지만 여기에서 다들 즐겁게 놀 았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도시 공원에서도 어린이들의 노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 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특히 모래놀이를 하고 싶은 나 이이지만 지금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타카시마의 모 래 사장에서 논 기억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타 카시마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다시 가고 싶은 곳 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깨끗한 공기, 그리 고 방사능의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을 지금도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남쪽 섬에 아직도!

여름 방학 어린이 프로그램②

후쿠시마 · 야마코시 조인트 캠프

7月26日—28日

2004 년 10 월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을 계기로 일본 성공회 중부 교구는 "이재민 지원 오픈 스페이스"를 시작해 주에쓰 지방에 위치한 야마코시 마을 (당시)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그 활동의 하나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와 조인트 캠프로 야마코시와 후쿠시마에서 24 명의 어린이들이 야마코시의 "아마야치 캠핑"에 모여 바베큐를 하거나 수영장에 가거나, 캠프 파이어를 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돌아가는 무렵에는 "내년은 후쿠시마에 야마코시의 친구를 부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 사이가 좋아져, 큰 고조된 캠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 캠프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가오카 성 루가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

6 시 30 분 부터 라디오 체 조

중부교구 시부사와 주교님도 오셨어요!

쥼처럼 깨지지 않는 수박 쪼개기

또 만나！！

모두 울리는 "희망의 종"

시부사와 주교님으로부터의 선물 불꽃놀이

여름 방학 어린이 프로그램③

가보자! 무로네랜드

7月23日—25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 티셔츠

말 "메이"에 탄거야!

밥은 모두가 들었습니다

야옹—

교회 근처의 고양이

지금까지 외국인 지원을 통해 만난 어린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무로네 나타나엘 교회를 숙소로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교회 주변을 "디즈니 랜드"가 아닌 "무로네랜드"라고 하고, 낮에는 승마체험, 밤에는 논 주위에서 반딧불을 찾는 등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참가자는 미야기현 다카죠시, 히가시마쯔시마시 , 이시노마키시, 미나미산리쿠에서 모인 유치원 유아부터 초등학교 5 학년까지의 7 명과 이웃에 사는 참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필리핀인으로 "외국에서의 재해"라는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재해 직후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습관의 차이로 매우 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육아를 하면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멀리 데려 갈 수 없는 엄마들에 대한 응원의 캠프이기도 합니다.

「피해지에 몸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자」보고

8 월 27 일 (월) ~ 30 일 (목), 아오바 세슈관을 예약 하고, 학생 15 명과 직원 5 명이 피해지 방문 및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나토리시 하코즈카 사쿠라 임시 주택을 소개하는 등 매우 신세를 졌고, 덕분에 매우 의미있는 체험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하, 학생의 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프랜 사제 코미나미 아키라)

첫날 : 오가와 초등학교 ~ 오가와 ~ 이시노마키시내 방문

쇼노 사야 (패션·하우징 디자인 학과 2 년)

해안가을 방문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파편, 그리고 변해 버린 건물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해의 크기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되어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격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살려 저는 미래 도시의 부흥과 지진과 해일 피해를 줄일 도시 건설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더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시다 시오리 (생활학과 3 년)

오카와 초등학교를 찾았다. 부근에 어린이 크기의 밑창이 떨어져있는 것을 보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또한 해일이 도달 한 높이에 표시가 세워 져있고, 그 장소가 학교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 조금의 판단의 차이로 피해 상황이 크게 바뀌어 버리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해일 화재로 건물이 불탄 카도노와키 초등학교에 서는 불탄 자리에서 피해의 크기를 느꼈다. 학교 근처에는 접시와 신발, 레인지 등이 흘러와서 있고, 그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현상을 더욱 가깝게 인식 할 수 있었다.

둘째날 : 하코즈카 사쿠라 가설주택에서의 차 모임과 방문

다쯔노 나호 (생활학과 1 년)

다도회에서 2 사람과 이야기하고 친해진 분의 댁을 방문 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 청소가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변 청소를 하면서 격이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매우 즐겁게, 때로는 다양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야 사키 (생활학과 3 년)

이번 가설 방문은 지금까지 보도에서 접할 수 없었던 지진의 영향 및 피해 현황을 당사자 의식을 갖고 생각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삶이 쉽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그래도 또 지역을 북돋우자 나선 사람들, 노래 부르고 웃고 밝게 행동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미래를 사는 아이들이 있었다. 각각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부흥이란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있는 모습이 보였다. 피해의 크기를 실감하고 다시금 자신이 재해지의 부흥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가고 싶다.

오와키 자치회장으로부터 가족방문을 위한 지도를 받음.

셋째날 : 설법과 대화, 제초 작업, 유리아게 지구 방문

마루가네 치히로 (어린이발달학과 2 년)

"모두 없어져 버렸다." 제에게 가장 인상에 남아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진 후 주민들이 처음 유리아게 지구를 볼 때 속삭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머리를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지도와 영상에서는 단지 점의 하나였던 집도 실제로 어떤 사람의 기억과 생활이 담긴 것이었다는 것. 그게 전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통감하고 아연 질색했다. 다시 현지와 자신과의 온도차를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카하시 에리 (심리학과 2 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보도 된 모습을 실제 눈으로 보고, 해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왔는지, 해수를 뒤집어 써 벼를 기르지 못한 논, 1 년 이상 지나도 계속하고있는 잔해 처리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의 당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먼저해야 할 일은 현재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찍은 사진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해 가고 싶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류죠단기대학 강사 : 미즈오치히로시

8月30日(木)-9月2日(日)

「피해자지원센터 신지」앞에서

후지 유치원, 마을의 공방 "마도카"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등을 방문, 원장님, 시설장, "신지"에 상주해 지원 활동을하고 있는 마츠모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들은 각각 다양한 것을 마음 속으로 느끼고, 또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가자의 소감 발췌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보육자로서 배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생겼다."

"내 속에서 이번 활동을 한 것을 되돌아 보며, 그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고 이번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잔해 더미는 잔해 더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로 숨진 사람들의 소중한 보물 같아요."

"피해자들과 접촉 만나며 피해자가 단지 슬픔뿐만 아니라 내일을 향해 모두가 같이 앞을 향해 살아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진 재해 부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주위 사람에게 전하고 마음에 강하게 세기고,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생활에 감사하고 생활하고 싶다."

"지금 자신이 본 광경을 절대로 잊지 않게 눈에 새겨두고 싶다. 스스로 이번에 체험 한 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과제로 삼고 가려고 합니다."

어린이와 일상 생활을 보낼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느끼고,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거나, 육성을 듣고, 안 것도 있고, 느낀 것이 있고, 지금 부흥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싹 오싹 전해져왔다. 이 경험을 통해,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

후지유치원 어린이들과

마지막으로, 이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 친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루 빨리 피해 지역이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가 돌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walKnow!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어디를 누구와 걷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프로그램의 후속 등 현재 활동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미나미산리쿠 (미야기현) / 손작업 프로그램

산파기타・화이팅・레이디(SFL)*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에코 가방이나 핸드백 등을 센다이 기독교회 성도들로부터 작품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헬퍼 2 급 자격을 딴 후에도 모두 함께 모이는 "장소"를 갖기 위해 기획 된 것입니다.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는 "장소" 의 역할도 있지만,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제작한 것은 판매를 해 SFL 활동비로 충당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것은 아무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원래 목적은 제쳐두고, 모두가 함박 웃음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에, "뭐든지 있어!"심경입니다.

*시즈가와에 사는 필리핀 여성 모임의 명칭

■이시노마키시, 다가죠시 (미야기현) / 학습지원

카리타스 이시노마키 베이스의 방을 빌려 어머니가 외국인 어린이들과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모두 함께 여름 방학 숙제에 임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엄마에게 보일 수 없던 숙제도 편하게 가르쳐 줄 자원 봉사자의 오빠, 언니가 곁에 있어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함으로 의욕도 늘어나 즐겁게 숙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교 수험을 앞둔 중학생 댁도 정기적으로 방문, 일본의 수험 시스템과 지역 고교 사정 등을 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키시 (후쿠시마현) / 타히라 칠석축제 출전

오쿠마 마을과 토미오카 마을의 분들은 함께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푹 빠져 임한 것은 신세를 지고 있는 현지인, 이와키의 "타히라 칠석 축제"에 협력하여 칠석 장식 제작을 한 것 이였습니다. 사회 복지 협의회의 분들의 지도를 받으며 제작에 힘 썼습니다. 그리고 타히라의 번화가에 장식 된 작품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우릿찌 교구 미카엘 이프구레이브 주교 방문

히에이산 종교 회의에 참석 한 후 8 월 6 일~8 일 센다이, 카마이시, 모리오카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8 월 6 일에는 모리오카 성공회에서 히로시마 원폭 기념 촛불 예배, 그리고 8 월 8 일에는 카마이시 신 아이 유아학원의 생일 파티에 참여, 각각 짧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촛불 예배에서 말씀하신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매년 8 월 6 일을 맞이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매우 복잡한 기분이 됩니다. 하나는 1945 년 8 월 6 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 된 (구) 일본군의 포로로 태국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던 아버지가 생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자 폭탄 투하에 의해 ※ 전쟁의 종결이 앞당겨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전쟁이 장기화 됐다면 생환은 어려웠습니다, 즉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있습니다. / 편집자)

다른 하나는, 그 날은 “주 예수 변용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을 드러낸 날이고 우리에 희망과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폭 투하를 전쟁 종결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제 개인사가 어떻든, 원폭 투하는 결코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느님이 나타내신 희망과 평화는 사람의 죽음과 파괴에 근거한 것이 결코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이 없어지지 않는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평화의 길을 선택 할 것인지 항상 선택을 재촉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설지원

●단시를 즐기는 모임 / 가마이시
●요리모임 / 가마이시
●체조프로그램 / 가마이시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핫코나 / 신지마치

8 월 24 일, 마침내 "핫코너"를 개점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중심이 되어 봉사해 주시는 분이 사쿠타 가설에 사시는 재해 입은 여성입니다.그녀의 밝은 미소와 수다를 볶은 신선한 커피 를 점진적으로 맛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 료가 모여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재민 지원 센터 신지" 지역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 습니다.【개점 일 : 매주 수요일 10 시~17 시, 매월 첫째 일요일 13 시 ~17 시】

◆카페 / 이와키시
◆벚꽃 피우는 코끼리 제작 / 이와키시

그 외에도 ... 호별 방문, 히마와리 쿠키, 수제 부채 배포, 패치 워크 교실, 방석 배포, 휴게실 프로그램, 타히라 칠석 축제 참가, 어린이 프로그램 개최 등

외국인지원

★개별지원 / 오후나토시, 이시노마키시, 다가죠시
▲영어회화교실 지원 / 나토리시
▲손수 만드는작업 / 미나미산리쿠
▲여름방학 숙제 지원 프로그램 / 이시노마키시
▲홈헬퍼 2 급 취득 강좌 / 게센누마시

장애자 지원

▲상품
구입지원 / 센다이시 (마도카) ,게센누마 (히마와리)
▲시설방문 / 센다이시 (마도카) ,게센누마 (히마와리)

기타

▲아오바세슈관 리폼 프로그램 / 센다이시
★기분전환 프로그램「남쪽 섬에서 여름방학」 / 나가사키
★영국 성공회 우릿찌 교구 미카엘 이프구레이브 주교 피해지 방문 / 이오테, 미야기현 각지
★유치원 교사 기분전환 프로그램 / 유후인등

★학생 자원 봉사자에 의한 가설 주택, 유치원 등에서 봉사 활동 /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각지

여름 방학에 많은 학생 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마이시를 찾은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해 온 노래와 춤을 가설 주택의 휴게실에서 선보여 주민들도 함께 유희를 즐겼습니다.

★일본 성공회 전국 청년 대회 2012 / 미야기, 후쿠시마 가지

8 월 23 ~ 26 일, 센다이에서 개최. 일본 성공회, 대한 성공회 청년 약 80 명이 모여 피해 지역을 기억하고, 배우고,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다리로 피해 지역에 서서 봄으로써 지진을 다 시 자신의 문제로 파악할 수있는 모습이었 습니다. 프로젝트도 협력해 참석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기,여러 현에서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거점의 블로그를 참조 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칼럼 그날 그때, 그 사람.

④빛이 켜진

"저도 모르는 풍경이에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들이 이시노마키를 찾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re : member ~ 빛을 밝히자 ~"를 테마로 내건 이번 전국 청년 대회. 프로그램의 하나인 "피해 지역 순회"에서는 각각의 재해지를 지역분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여성에게 해일의 피해를 입은 거리의 모습은 그녀가 알고 있는 이시노마키는 없었습니다만. 그녀는 자신의 고향의 풍경을 봐도 그리움을 느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같은 위치에 같은 건물이 지어진다해도, 그 여성에게 고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래 위치에서 이전과 같은 상점이 재개해 기쁘다"고 말하고, 해일 피해로 집들의 불빛이 잃어버린 깜깜한 이 거리에 상점 과 주택이 부활의 "빛이켜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2012 년 전국 청년 대회 참가자)

함께걷자 ! 프로젝트 소식지 제 11 호 2012 년 7 월 1 일 발행
「함께걷자 !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 : 00~17 : 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 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